

# 군선교 신학

9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 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의 군선교는 지난 1949년 해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 금년이 63주년이 되었으며, 1951년 6·25 전쟁 중에 군종목사 제도로 창설된 기준으로는 60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그동안 장병들의 복음화와 신앙전력화의 구체적인 열매는 세계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군선교연합회가 조직한 한국군선교신학회는 매년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신학 논문을 공모하는 등 군선교신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군선교 사역의 확고한 기반 조성,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군선교 전략과 전술을 개발 및 적용해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것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오함이 지대한 가운데 어느덧 제11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군부대 내의 각종 군기,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져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더욱 꺼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에 입대한 장병들 또한 체력과 정신력은 더 약해져 군부대 내에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년 제11회 심포지엄은 “군인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러한 때에 국군장병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갖고 군복무에 임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당연하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국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간과한다면 군복무는 부담이며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군선교논문집 제9권에는 기독교장병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과 신앙관, 전쟁 중 애국심과 개인윤리, 하나님의 전쟁신학과 군선교 사명을 다룬 논문 등이 실렸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쪼록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나아가 군장병들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 주신 쿤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군종 목사님들과 군선교 교역자 및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9월 25일

곽선희 목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군인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문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군(軍)이 풀어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군선교신학 논문 제9집에서 집중적으로 애국심과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사실 군(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피하지 않고 하나씩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해답을 몰라서 헤맸다기보다 문제에 대한 깊은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방향조차 찾지 못했던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군인의 애국심이 흐려졌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군인의 윤리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와 규범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를 구분 짓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만 명을 죽인 이는 개선장군으로 추앙을 받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국가라는 공동체가 행하는 것과 개인의 윤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개인윤리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는 말씀은 공공윤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집단 생활에서는 유보되고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했다.

이 책에 훌륭한 원고를 써주신 집필자 제위께 그리고 편집에 수고를 한 여러분께 독자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읽는 이마다 애국심이 고취되어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란다.

2011년 9월 25일

이 종 윤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박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11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이종윤

36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 강사문

56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 우기식

61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주연종

92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평 | 오덕교

98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 이규철

135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 김추성

156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 임성빈

176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 김수진

234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 안명준

256 군목과 지도력 | 안광춘

273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김동연

303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 정성구

309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 최석환

##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Military(Chaplain) Patriotism and Private Ethics

■ 이종윤 Lee, Jong Yun

- 서울교회 위임목사(Rev. Ph.D., D.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1. 왜곡된 파시스트적 국가관

‘애국심’(愛國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국가(國家)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사를 살펴볼 때, 전쟁 도발은 항상 잘못된 국가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을 도발한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그릇된 국가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애국심은 참된 국가관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애국심이 발로(發露)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도발한 정치 지도자들이 내세운 국가관은 백성들을 싸움터로 몰아가기 위한 ‘이데올로기’ (Ideology)였고, 그들이 강조했던 ‘신앙’ (信仰)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합법화하고, 신성시(神聖視)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에는 이 두 가지 요소—곧 ‘잘못된 국가관’과 ‘왜곡된 신앙’—가 항상 그 내면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에 의해서 주도된 미국에 대한 테러전쟁도, 한편으로는 ‘성전’ (聖戰)이라는 구호 아래 ‘이슬람’ 종교가 배후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범 이슬람 국가 재건’이라는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 국가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항하여 일으킨 테러전쟁의 사상적 뿌리를 찾아보면—물론 역사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20세기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파시즘’ (Fascism)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이란, 곧 대중(大衆)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격한 언사(言辭)로 위장하고, 신비의 의상을 걸친 민주주의(民族主義)”이기 때문입니다.<sup>1</sup> 이러한 ‘파시즘’은 1922년 이탈리아의 실권을 장악한 무솔리니(Mussolini)를 비롯하여 1933년 독일의 히틀러(Hitler), 그리고 1936-1939년까지의 스페인의 프랑코(Franco), 그리고 그밖에 동구권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형

<sup>1</sup> 참조. Crane Brit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Wofff, A History of Civilization, 梁秉祐 외 4인, 『世界文化史』(서울: 乙酉文化史, 1963), 377f.

성하기 위하여 내걸었던 이념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Suharto)와 최근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세습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이데올로기와도 유사합니다.

파시즘적 국가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대략 14가지로 종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바로 ‘국수주의적 국가관’입니다.<sup>2</sup> 그래서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외관상의 특성은 우선 ‘착색된 셔츠(shirt)’를 입고, ‘사설 군대’를 가지고, ‘민중 최면’을 행하고, ‘특수한 경례’를 하며, ‘독특한 전쟁구호’를 외치면서 ‘의식’을 행하고, 특히 ‘민족적 광영(光榮)을 신비화(神祕化)’하고, 과대(誇大)한 정복계획을 내세우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파시즘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재자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혹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양분하여 적대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못 가진 자들’로 규정하고, ‘가진 자들’에 대한 투쟁을 앞세웁니다. 따라서 ‘파시즘’은 자연히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제도(議會制度)’에 대하여 격분한 반발을 일으키고, ‘입헌정치체제’를 반격하면서 개인의 인간성을 무시한 국가 지상주의(至上主義)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로, 혹은 아주 과격한 언사로 무자비하게 반대자들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시즘은 ‘국가발전, 국가재건 혹은 국가독립’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 아래, 정치사찰, 집단수용소, 공포정치, 국민의 기본권 박탈 등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自行)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시즘은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믿으라, 싸우라, 따르라’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을 고무(鼓舞)합니다. 즉 최고 지도자의 말과 정책을 ‘믿으라’, 그를 위해서

<sup>2</sup> 참조. Lawrence Britt, ‘Fourteen Defining Characteristics Of Fascism’, <http://www.libertyforum.org/showflat.php?SourceFreeInquiry.co5-28-3>



‘싸우라’, 그리고 무조건 최고 지도자 동지를 ‘따르라’고 강압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스즘은 최고 정치 지도자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끝내는 ‘종교화’ 합니다.

이러한 ‘파스즘적 국가관’은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의 파시즘적 국가관은, 남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민족’이라는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입니다. 즉 ‘남북한, 우리는 모두 하나(一)의 한 민족(韓民族)’이라는 이념 아래 남북의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하고 일단은 무조건 ‘민족통일’을 이루어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관은 이미 20세기의 파시스트 무솔리니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으며, 규율만으로 충분하다”고 외치면서 1924년에 쓴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시스트들은 모든 전통적인 정치이론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며, 우리는 귀족적이고 서민이며, 혁명가이며 보수주의자이며, 프롤레타리아이고 반프롤레타리아이며, 평화주의자이고 반평화주의자이다. 우리는 단 한 개의 확고한 점, 즉 민족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나머지는 명백한 것이다.<sup>3</sup>

이와 상응하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하나(一)의 한(韓)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 아래, 남북한이 ‘한반도 깃발’ 아래 함께 모아지는 ‘통일은

동’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났고, 또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왜곡된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 때문에, 백주(白晝)에 공공연하게 서해안 연평도가 북한의 해안포 공격을 받아 섬 전체가 초토화되어도 대다수의 젊은이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단지 경계활동만 하고 있던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의해서 침몰당하여 수십 명의 국군 수병들이 칠혹같이 어두운 밤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도, 남한의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에 격분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를 불신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內) 좌파 세력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식량을 원조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여도 그것을 ‘북한 주민을 돕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착취 혹은 자본주의적 문화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이념체제’라는 것을 망각하고, 단지 ‘혈통주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관’ 때문에 자신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주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들의 그릇된 국가관을 개인윤리 차원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하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에서 ‘참된 애국심’이 무엇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한 개인의 ‘사상적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관은 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치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왜곡된 파시스트적 국가관’ 때문에 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국수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사회주의’는 6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참상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수

<sup>3</sup> Franz Neumann, Behemoth,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44, 462f. George H. Sabine,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4th. revised by Thomas Landon Thorson, 成裕普 車南姬 譯, 《政治思想史》[서울: 한길사, 1983], 1096에서 재인용.



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사회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국수주의적 혈통주의 국가관과 국가 사회주의의 문제점

우선 먼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Fascism)과 독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Nationaler Sozialismus)의 공통점을 열거하자면—두 가지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정치이념이지만—그들에게는 어떤 통치철학이나 정치이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통치방법은 단지 ‘군중심리’와 ‘폭력주의’의 혼합이며, 이들은 오로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통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파시즘과 국가사회주의는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여—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포퓰리즘’ (Populism)으로—대중의 열광적인 충성을 유도해 내는, 단지 ‘민중운동’을 통한 정권장악에만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박한 ‘민중운동’에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까지도—특히 오랜 세월 봉건주의의 억압을 받아온 소시민적 농민까지도—이 운동에 맹목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예컨대 히틀러 당시 비상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괴벨스(Goebbels) 같은 학자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야말로 공산주의, 군주제, 또한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을 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바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칭송하였으며, 히틀러에 대한 영웅적 숭배와 반유대주의에 동조하였습니다.<sup>4</sup> 뿐만 아니라 1914년 9월에는 보수주의 신학자인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를 비롯하여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카이저(Kaiser) 황제와 독일의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sup>5</sup> 독일 신학자들의 이 서명을 묵도하고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그 영광을 잃고 말았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균형을 잃었으며, 구멍이 뚫어졌다고 평하였습니다.<sup>6</sup>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혈통주의 국가관’은 모든 인간적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마성적(魔性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sup>7</sup> 왜냐하면 크라우제(Kause)는 독일 민족주의에 동조하는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우리는 한 국민, 한 공화국, 한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참된 독일 민족 기독교의 기초 위에 있는 나누어지지 않은 독일 국민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2. 우리는 피와 흙에 뿌리를 둔 국민 공동체의 신적 계시를 고백한다.
3. 우리는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모든 외래적인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위대한 독일의 정신적 지도자들의 말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선포된 독일적 경건의 복음의 근거 위에서 있다.
4. 교회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해서 같은 삶의 법칙을 타당하게 적용한다. 그것은 우리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라는 것이다.<sup>8</sup>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로, 혈통적 국수주의적 국가관이 국민들을 싸움터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로 변하고, 그

<sup>4</sup> 예컨대 The Goebbels, 1942-1943, Eng. trs. by Louis P. Lochner, 1948, 16, 62, 116, 242, 370 등등.

<sup>5</sup> 참조. A. Schlatter, Die Geschichte des Christus, Stuttgart, 1923, trs. Adreas J. Katenberger, The History of the Christ. The Foundation for New Testament Theology, 한제호 역, 《그리스도의 역사》(상, 하) (서울: 자연, 2007).

<sup>6</sup> Mueller, Karl Barth, Texas Books Publisher, 1972, 20.

<sup>7</sup> 참조. Edwar A. Mowrer, Germany puts the Clock Back, 1933, 149.

<sup>8</sup> Arther Frey, Cross and Swastika, London, SCM, 119. 박봉량, 《신학의 해방》(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13에서 재인용.

것이 발전하여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합법화하고, 신성시하는 ‘종교’(宗教)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민’, 곧 ‘한 민족’은 곧 ‘한 공화국, 곧 한 국가’ 그리고 ‘한 신앙’으로 통합되고 신성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와 흙’이라는 혈통주의 국민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혈통주의 국가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관은 안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밖으로는 타민족에 대한 철저한 배타주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환원됩니다. 넷째로, 결과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전이(轉移)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이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의—소위 앞서간다는—진보 세력들의 국가관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혈통주의 국가관’에 이미 발을 깊이 들여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참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통일된 조국의 번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중국, 일본의 부흥을 염려하며, 대한민국이 열국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무조건 남북한 한 민족이 통일하여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혈통주의 민족주의 국가관’을 변호하여 한 사람의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정신의 국가관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국가관이며, 국제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타국을 빌미로 자국의 ‘민족주의 혹은 혈통주의 국가관’을 앞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혈통주의 혹은 민족주의, 심지어는 국수주의 국가관’을 가질 때, 자국만을 위한 침략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미 이러한 실례를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自己) 민족 중심의 혈통주의 국가관’은 결과적으로 ‘세계대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3. 애민(愛民) 애족(愛族)에 기초한 국가관

참된 국가는 자기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라는 권력의 집합체를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Plato)은 ‘국가의 자연발생설’을 주장하면서 독재자나 자치제도의 권력의지에 반대하는 하나의 보다 높은 ‘최고 결정기관’으로서의 ‘국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기초하는 것은 바로 정의(正義)라고 했습니다. 즉 ‘정의가 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한 국가가 흥왕하고 멸망하는 것은 그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모든 방면에 널리 퍼져 있는 윤리적인 퇴폐”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sup>9</sup>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신정론(神政論)을 주장하였습니다. “신(神)이 아니라, 죽어갈 인간을 통치자로 받들고 있는 국가는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죽지 않는 것을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삶을 위한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sup>10</sup>

9 Plato, 《법률》, 688c.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법률》은 오푸스의 필리포스(Philippos von Opus)가 편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플라톤은 여기서 다시 ‘국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0 《법률》, 713c.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관에 의하면, 정치 지도자 한 개인을 우상화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러한 집단은 국가도 아니요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는 또 한 국가 최고 지도자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집단은—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 를 구성하고 있는 ‘제1실체’ 인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구성요소로 결집된 국가라는 ‘제2실체’ 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보다 앞설 때 국가조차도 존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국가 사랑’ 은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혹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본래적인 과제(課題)는 순수한 공리성(公利性)이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행동,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sup>11</sup> 이와 상응하게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도 “국가의 최고 목적이자 인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곁에서 정복(淨福)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에 의하면, 참되고 올바른 국가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애국’ 도 세속적 ‘국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복’이나 보이지 않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헌신적 사랑입니다.<sup>12</sup>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

느니라” (요일 4:20; 눅 10:27)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참된 사랑도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국가관이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고, 참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Christus pro nobis, 참고 롬 5:8)이듯이, 참된 국가도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애국심도 참된 이웃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세금 내고, 법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요일 4:19).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요 10:11), 참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일가(一家)의 통치가 과연 북한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통치입니까? 북한의 김정일의 통치는 ‘강성대국’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통치자 우상화’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치가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행동,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적 국가관에 대하여는 충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 공동체가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다른 나라는 패망해도 괜찮다는 배타심에서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 역시 1933년 독일 히틀러의 ‘아리안 입법’을 지지한 ‘독일 기독교 신자들’의 제국총회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sup>13</sup> 그런데 1930년 말 발행된 잡지 <기독교 세계> (Christliche Welt)에 의하면, 그

<sup>11</sup> Aristoteles, Πολιτικά, 3권 9장, 1281a2.

<sup>12</sup> 영어 표기에 있어서도 정확히 말하면, ‘nation’은 국민, 곧 백성을 의미하고, ‘State’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 서로 통용되고 있다.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 《基督教倫理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242.

당시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나치스이고……프로테스탄트 신학생들의 거의 90%가 강의실에서 나치스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sup>14</sup> 그래서 <기독교 세계>는 ‘목사 후보생의 반 이상이 히틀러를 따라갔다’는 불평이 교회의 신학교로부터 있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sup>15</sup>

오늘날 한국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국민의 영혼과, 영적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국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 나라와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 불치의 병마로 인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국가관 혹은 ‘애국’의 의미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과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군목(軍牧)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멸망시키는 군대, 곧 아군(我軍) 안에서 적군(敵軍)을 양성하는 종교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군목의 참된 사역은 사병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

다. 그러나 군목이 단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종교적 제의만 진행한다면, 그가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군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군목의 국가관과 윤리관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군목이야말로 군대에서 지휘관으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참된 국가관’과 ‘윤리관’을 정립해 주어야 할 교사이며, 동시에 자신이 가르치는 국가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참된 국가관에 이어서 군목의 참된 윤리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4. 군목의 최우선적 정체성으로서의 그리스도교적 신앙

‘군목’(軍牧)이라는 직책의 정체성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군목은 우선 군인이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목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군목이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목이라는 직책을 가진 군인 장교입니다. 이러한 군목의 정의에 의하면, 첫째로 ‘군목’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식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군목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러한 군목은 ‘군승’(軍僧)이 되거나 ‘군신부’(軍神父)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목의 윤리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군목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둘째로, 군목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군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직책’입니다. 따라서 군목에게 요청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sup>13</sup> ‘독일 기독교 신자들’은 1933년 7월 23일 행해진 교회 선거에서 73%의 득표로 독일 교회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수주의적 히틀러의 독재정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래서 본회퍼를 비롯한 ‘젊은 개혁자들의 모임’은 교회 정치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sup>14</sup> Bethge, DB, 197 《基督敎의 非宗敎化》, 45에서 재인용.

<sup>15</sup> Christliche Welt, 1930, 11626(Bethge, DB, 157에서 재인용). = 《基督敎의 非宗敎化》, 45에서 재인용.

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에 상응하는 국가관 및 윤리관입니다. 즉 군목에게는 자유 민주주의의 사상적 특성에 상응하는 가치관과 ‘군 복무 규정’의 행동지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군목 사역을 하나의 직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직업윤리’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자유 시민 혹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이 군목에게 보편적으로 요청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개인 행동에는 언제나 그 한계점과 책임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목 개인의 윤리를 언급할 때는 일반윤리와는 다른—앞에서 언급한 3가지 요소, —즉 그리스도교 신앙,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가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목사’라는 직책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1) 기독교 신앙이 전제된 윤리

군목은 군목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군인과 다르게 ‘두 세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목은—일반 그리스도인처럼—지상의 세속적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sup>16</sup> 그러므로 군목에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기독교 기본 윤리’가 선행적으로 요구됩니다.<sup>17</sup> 첫째, 국가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군목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리스

도인인 군목은—국가가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먼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의 최대 관심은 자국의 지정학적 국민적 공동체 건설에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모든 인류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적 인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관심은 동일한 지정학적, 혈통적, 정치권 안에서의 공동체 형성에 있지만, 군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범우주적 인류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자국의 정체성과 자국민의 안전 유지에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군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국가는 그 권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법적,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만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법적,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각 사람의 ‘신앙’에 호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군목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때론 ‘순교’(殉敎)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군목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행 5:29)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혹은 군목이 ‘세속적 국가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윤리적 의무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윤리적 의무가 선행되는 것은 보편이 실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Coram Deo)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이지만, 이 세속적 지정학적, 혈통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이념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지상의 국가’는 보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민족적, 국가적, 정치적 이념에 기초

<sup>16</sup> 참조.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xx, 1.

<sup>17</sup> 이하의 세부 내용은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 《기독교윤리學》, 243이하를 참조.

할 때는 모든 국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차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보편적 이념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군목의 윤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군목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군목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전쟁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할 때, 독일 국민이며 목사인 본회퍼(Bonhoeffer)가 독일 총통 히틀러에게 대항하였던 것은—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국가의 명령에 우선한다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34년 8월 2일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Hindenburg)가 죽고, 히틀러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총통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베를린(Berlin) 방송 시간’이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그릇된 지도자의 개념’을 경고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이 그에게 우상을 기대하면, 그 지도상은 조만간 악마의 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자신을 우상화하는 지도자와 정부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마련입니다.”<sup>18</sup>

본회퍼의 이러한 발언이 뜻하는 바는 정치-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한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거나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십계명의 제1계명(출 20:3-5)을 거

역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특정한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시하는 ‘민족우월주의’는 ‘종교적 마성(魔性)’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sup>19</sup> 왜냐하면 최초 인간 아담이 타락할 때도 사탄은 ‘인간을 신격화’(homo erit sicut deus)시키는 것으로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 2)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이 전제된 윤리

군목은 군목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군목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군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군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이념에 상응하는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군목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서 ‘군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는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닐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人命)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군인의 군목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군목은 오히려 ‘적군’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영적(靈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고

<sup>18</sup> D. Bonhoeffer, *Gesammelte Schriften*, Bd. 2, München 1974, 35.

<sup>19</sup> 이러한 점에서 ‘선택사상’에 근거하여 ‘셈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역시 ‘종교적 마성(魔性)’으로 빠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도외시(度外視)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비록 이 세상 국가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국가가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지상적 국가관에 존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지상적 국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이 지상적 국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상의 세속적인 나라의 권세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권세(權勢)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벡전 2:17).<sup>20</sup>

그러나 이 지상의 권세가 악할 때는 그 세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폭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정부를 사악한 ‘땅의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계 17:5-6). 칼빈도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그러한 자를 제거하는 데 자비심을 베풀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때, 그들은 반드시 진압되어야 하며, 그들은 헌신적 이상으로 평가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지상 국가의 정당한 권위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면서 자기 신앙 중심의 ‘열광주의적 신앙인들의 군복무 거부’는 배척되어야 할 것입니다.<sup>22</sup> 왜냐하면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자유는 참 신앙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도 “자유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인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한계 내에서 자유인으로서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sup>23</sup>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무질서한 개혁을 전개하였던 열광주의 농민들에 대하여 귀족들 편에 섰던 것입니다. 자유를 빙자한 이기주의적 윤리관 혹은 종교적 열광주의는 참된 신앙도 개인윤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전제하지 않은 개인주의적 자유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네(= 베드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마 26:52-54)라고 말씀하

<sup>20</sup>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벡전 2:17).

<sup>21</sup> J. Calvin, *Calvini Opera*, xli, 415-16. 이밖에 참조, Georgia Harkness, *John Calvin: The Man and His Ethics*, ch. xi.

<sup>22</sup> 칼빈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개인주의적 자유개념에서 ‘개인의 자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열광주의자들의 자제 없는 방종과 이 세상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다. 참조, J.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V, xx, 2.

<sup>23</sup> Karl Kupisch, 《칼 바르트》, 박종화 역(神學思想文庫, 9), 202.



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적 자유’ 개념은 비록 그것이 자기 신앙에 기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군목의 윤리’, 혹은 ‘개인윤리’의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정치철학적이념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심지어 자기 신앙에 근거한 자유—라고 할지라도 ‘자유 민주주의 정치이념’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통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저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3) 군대(軍隊)라는 특수집단에 제한된 개인윤리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모든 자유 시민 혹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과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은—그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악(惡)을 강요하거나 직접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공동체의 존립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행동에는 언제나—공동체나 국가 기관의 존립에 상응해야 한다는—한계점과 책임성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군목’은 ‘군’(軍)에 속한 목사이자, 일반 사회에 속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목의 개인윤리를 언급할 때, 우리는 항상 ‘군대’라는 집단 혹은 공동체의 존립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특수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때로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타국의 침략을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불가피하게—정당방위 차원에서—침략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살(打殺)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입니다. 전투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신 5:17)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더 자세히 말하면, 자국

의 영토 확장이나 정치권 확장을 위해서—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를 저지하는 ‘제어행위’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침략행위는—어떠한 명목을 내세우든—살인행위이고, 그러한 살인행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략자와의 전투에서는 ‘침략자에 대한 제어’가 오히려 ‘정의’입니다. 악(惡)과의 싸움에서는 악을 소멸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야 국가가 전쟁(戰爭)에 나가도록 명령하여 전쟁터에 나간 것이지,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평소 국민들은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이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행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北韓) 김정일 부자(父子)가 남한을 침략하려고 북한 국민들을 책동할 때 참된 국민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라면, 그러한 김정일 정책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은 언젠가 그 대가를 스스로 받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악한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악정(惡政)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목은 침략자를 저지하는 일에 ‘평화의 사도’로서 침략자를 진멸하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군목의 개인윤리이자, 군목이라는 특수사역의 윤리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왕들의 침략전쟁을 저지하였습니다. 예컨대 선지자 미가야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여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행하려 할 때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임을 선

포하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희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미가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왕상 22:17). 이렇듯 군목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휘관에게 혹은 정치적 지도자에게 전할 ‘예언자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며,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군목은 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그들이 패하여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올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습니다(출 17:8-16). 이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정치적 지도자들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은 기필코 패배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군목뿐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의 ‘전쟁관’은 ‘개인의 정치적 철학적 이념’에 기초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신학자 폰 라드(von Rad)에 의하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성경에서의 전쟁’을 ‘여호와와의 전쟁(Milhamoth Yahweh)’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상응하게 적군(敵軍)도 구약의 증언에 의하면, ‘여호와와의 적’(삼상 18:17, 25:18; 민 21:14)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sup>24</sup>

<sup>24</sup> 참조, G. von Rad, 《폰 라드 논문집》, 김정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15-223, 특히 122.

## 5. 신학적 윤리로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바른 애국심’은 ‘바른 국가관’ 위에서만 정립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윤리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위에서만 정립될 수 있습니다. 환언(換言)하면, 바른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거짓된 애국, 예컨대 국수주의(國粹主義)나 혈통주의 혹은 민족주의(民族主義) 애국심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기주의적 생각을 보편화하는 편협한 개인윤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군목이 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군대는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정신적 혹은 신앙적 투쟁’이 선행된 상태에서부터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생 라합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자봉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수 2:8-10).

따라서 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앞장에서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철저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기초한 ‘신학적 윤리’(Theological Ethik) 혹은 ‘기독교인의 윤리’(Christian Ethik)이어야 합니다.<sup>25</sup> 왜냐하면 살아계

<sup>25</sup> 이 점에 관하여: Heinz-Horst Schrey, Art. ‘Krieg IV: Historisch/Ethisch’, THE 20, 29-55.

신 하나님을 전제한 기독교인의 국가관 및 윤리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否認)하는 민족주의적 혹은 혈통주의 ‘국가관’에 기초한 애국심과 윤리관은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 국회의장이었던 르우벤 리블린(Reuven Livlin)의 유명한 비유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해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거북이에게 강 건너편까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거북이가 ‘나를 죽일 것이 뻔한데’라고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전갈은 “은혜를 입으면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착한 거북이는 전갈을 등에 업고 강을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가운데 이르자 전갈은 독침으로 거북이의 목을 찔렀습니다. 거북이가 죽으면서 “우리 둘 다 죽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고 전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전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천성(nature)이 그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북이가 죽자 결국 전갈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sup>26</sup>

이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나 혈통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천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북이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 철저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기초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국가관과 개인윤리’ 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

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한(有限)이 무한(無限)을 품을 수 없듯이’ (finitum capax non infiniti), 한 개인의 윤리관과 국가관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보편적 윤리, 곧 ‘신율’ (theonomie)에 기초하여 국가적, 민족적 명령인 ‘타율’ (hetelonomie)을 따라야 하고, 타율에 기초하여 비로소 자기 자신의 윤리 곧 ‘자율’ (autonomie)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군목)의 애국심과 개인윤리는 철저히 ‘신학적 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sup>26</sup> 이일호, 《강소국 이스라엘과 땅의 전쟁》(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7), 12에서 재인용.

##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The Understanding of Nation and Faith of Christian Soldiers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서론

군인이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국가 안보란 국토, 주권, 국민의 생명, 재산과 문화를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즉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으로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국가안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소집된 존재들이 군인이고 그들의 집단이 군대이다. 그래서 군대란 이런 특수 목적만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 공동체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방법은 최선의 과학적 무기로 적을 제압하고 승리를 이끄는 것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에게 달려 있다. 이는 최신 무기가 우세한 미국이 월남전이나 최근 이라크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한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군 장병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장병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전심전력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 장병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해야 되는가?

먼저 군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사명과 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태도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신앙심이 별개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즉 이중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에게서 나라의 국경은 있으나 동시에 우리는 나라의 국경을 초월한다. 전세계 기독교 장병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국제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한 민족공동체라는 과제 앞에 국군 장병으로서, 또 기독교 장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다른 기독교 군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가 주어진 과제이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 2. 군인의 국가관

군인의 목적과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먼저 군인은 자기 국가를 왜 지켜야 하는지, 국가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사람은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 가치의 국가관(國家觀)으로 인식한다. 나라가 건재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愛國者)가 존경을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애국의 가치(價值)가 그 만큼 숭고(崇高)하기 때문이다. 애국심의 대상인 국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즉 국가란 무엇인가? 구약성경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바 그의 위임 통치의 장(場)이다.

#### 1)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바 그의 위임 통치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오랜 세월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독특한 언어, 풍습, 문화와 역사 등을 공유하게 된 공동체로서 혈연, 지연, 종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을 갖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는 자연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상관관계, 즉 국가 구성원들 상호 간에 투쟁과 정복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도 국가의 지역 경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리적, 혈연적 한계로 인하여 정해진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연질서 이상의 하나님에 의한 창조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26-27절에 보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도 모든 만민이 거하는 거주지의 경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말한다. 신약에서도 국가의 형성과 경계는 자연질서 이상의 창조질서에 속한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와 함께 민족 개념은 더욱더 창조질서에 속한다. 국가(nation)의 정치적인 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고이(גוי)’와 백성(people)을 의미하는 ‘암(עם)’은 의미상으로는 구별되지만 피차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통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라는 실체는 망할 수도 있으나 민족의 실체는 그리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의 발단이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립하여 형성된 주권국가의 생존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 8:2-5).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언급한다. 또한 디도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권한다(딤후 3:1). 예수님도 “가이사(가이) 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지 않으셨다. 세상 왕이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본래 왕이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선택되고 파견된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울 왕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부음받은 자였고(삼상 9:16, 10:1), 바울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다(롬 13:6).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신 17:14-20)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한해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들이고, 백성들이 왕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대하 36:22-23; 스 1-6장).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2) 하나님의 위임 통치 목적은 이 땅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위임 통치기구이다. 사울에게 위임된 국가는 사울 왕국이고, 다윗-솔로몬에게 위임된 국가는 통일왕국이다. 이 위임 통치된 국가들의 목적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정의 구현을 위한 정치행위는 곧 신앙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목적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정(神政) 정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세운 것도 그 공동체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왕 된 자의 임무도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신 17:19-20).

이는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일과 공의를 구현하는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즉 교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는 정치신학의 이상이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과 병행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모든 권력의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정의 구현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진 것이다. 한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불린다(롬 13:4).

또한 지상의 평화의 통치자이신 메시아 역시 그의 사명이 정의 구현에

있음을 예언자들은 언급한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렘 23:5, 33:15). “다윗의 왕좌와……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7).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사 11:4-5).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이 땅 위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행위는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신앙행위와 무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즉 선택된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도구로 쓰일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 안 되어 버림을 받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 버림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 군인들은 투철한 국가관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기독교 군인들은 국가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관이 요청된다. 더욱이 기독교 군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지만 기독교 자체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사명감은 더욱더 벅차다.

### 3.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관

성경에서 지상의 국가관과 유비될 수 있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징을 지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教會)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된다. 구약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베드로전서 2

장 9절에서 반복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와 맥을 잇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며(갈 3:7), 로마서 11장 17-24절에서 이방인들은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들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교회가 교회 건물이나 교파를 가리키는 경우는 없다.

특히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설명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전 12:12; 롬 12:4-5; 엡 1:22-23; 골 1:18). 믿는 자들은 이 몸의 지체들로서 그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다(고전 12:12-31). 그리스도와 교인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된다. 이런 표현들은 교인과 그리스도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와 교인들 간에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성경에서 교회와 지상 나라와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분리 결합된 집단을 이루었고(행 2:44-45), 소유를 공유한 적도 있으나 이런 습관은 곧 사라졌다. 주로 소종파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경주하였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다. 교인들의 지상나라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예수님의 국가관은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자의 국가라 할지라도 이 이방(異邦)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役事)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출

19:6)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이스라엘의 선택(選擇) 또는 선민(選民)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묶는 띠를 계약(契約)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목적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대대로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택하신 것도 정의의 구현을 위함이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의 도를 지켜 의(義)와 공도(公道)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19).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선민의식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듯이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렐 18:1-11). 선택된 나라는 만국(萬國)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만약 선택된 나라가 만국을 위한 사명을 망각할 때에 선택된 나라와 백성은 곧 우월(優越)과 자만(自慢)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나라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렐 18: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렐 18:9-10).

따라서 지상의 나라는 자연질서(自然秩序)이고, 하나님 나라는 신적 질서(神的秩序)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목적은 같으나 이루는 방법과 특성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 산재된 나라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는 그 나라의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할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역적 국경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의 평화와 구원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상의 모든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보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롬 11:25-36). 그러므로 기독교 군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 나라의 국방에도 헌신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나 지역 교회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기독교 군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4. 기독교 군인의 국방 의무의 자세와 사명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접하기 전에 한 나라 국민으로 운명지어진다. 기독교인의 신분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 이전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강제이나 교회 헌금은 자율적 의무이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 국민은 먼저 국가 공동체에 우선해야 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

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생리이다. 한편 교인으로 그의 의무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군인이기에 앞서 국가에 충성해야 할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은 국가 단위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군인들은 천국의 시민권(빌 3:20)과 대한민국의 주민권, 즉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의무를 갖는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기독교 군인은 늘 이중 구조와 생활 속에서 이중 의무와 권리를 향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지상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상치될 때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애국자가 되느냐 매국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 국가와 민족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공동 목표는 정의 구현에 있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양자가 동심일체라는 것이다. 이는 일원론적 사고유형에서 출발한다. 루터도 일원론적 사고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이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오른팔이라면 지상 나라는 왼팔이다. 칼빈의 사고구조가 더 일원론적 사고 유형에 속한다. 칼빈은 지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이해한

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각각 다른 기관이지만 다같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나라라면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지상 나라의 기능도 정의를 구현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도 주 안에서의 복종과 같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은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등하고 충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나 지상의 나라가 각기 자기의 한계를 넘어 상대 영역을 침범할 때, 또는 나라가 나라의 위탁기능을 망각하고 외도를 할 때이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절대적 분리는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이 지상 나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암시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된다. 권세란 지상 나라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다. 예로부터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는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한다. 전도서 8장 2절에서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主)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2:13-14).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악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주어진 하나의 답변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 한해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과거 일본 국가에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여러 애국지사들처럼 항거하다 순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으로 평가할 때 20세기 전반부의 일본 권세는 악의 화신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지상 권세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까지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교자의 순교 정신만이 후세에 큰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논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즉 루터의 논리대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로 하나님의 큰 뜻에 헌신하는 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사참배와 같은 나라 권세의 요구에 대해 굴종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의 태도도 루터와 같은 견해이다. 주전 6세기 초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더 큰 나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명을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렘 27:12).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의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점은 세계 역사 운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으니, 곧 악한 자는 악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제정일치시대에는 종교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을 주관하는 자가 동일인이고 양쪽 영역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왕이 곧 제사장으로서 정치와 제의를 다 주관했다. 정치가 건전했으면 종교도 건전했고, 정치가 부패했으면 종교도 부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국 전까지는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정치가 세속화되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듯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피차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파수꾼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지원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직접 왕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같이했다.

실제로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the power)에 힘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땅의 권세요, 상대적 인간의 권세(a power)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권세이다.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한계 내에서만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교회도 같은 논리에 부딪힌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조건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조건적, 한계적인 권세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인들은 양심에 따라(롬 13:5) 합리적,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도움이 된다(행 5:29). 바람직한 것은 양자가 항상 한계적 존재임을 의식할 때 긴장과 충돌이 없다. 그러나 역사상 교회와 나라는 늘 긴장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

곤 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권세는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는 나라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이원적이 아니고 일원적이다. 교회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비교하면 피차 다른 점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구분	지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의 존재 기간	잠정적 나라	영원한 나라
창건 과정	전쟁을 통해서 창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현
목적물 달성하는 방법	물리적 힘	사랑의 힘, 영적인 힘
나라의 성격	때때로 적그리스도, 또는 악의 화신(잠 16:4)으로 변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통치	하나님의 간접, 가시적 통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

## 2) 지상 나라의 국민과 지도자의 의무는 정의 구현과 국가안 보다.

성경에서도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나라의 안보와 평안에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의 즉위 목적도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진술한다(삼하 8:15).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 즉 미쉬파트(*misphat*, Justice)와 체데카

( $\text{צְדָקָה}$ , righteousness)를 행하였다”고 한다. 정의와 공의의 구현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왕상 10:9 하). 솔로몬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져 그들이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강과 구원과 자비를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잘 준행하면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렘 22:3-5). 즉 왕들은 그들의 책임인 정의 구현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됨을 보여준다. 나라의 존재 근거가 왕의 정의 구현에 있다. 다윗 왕국이 건재했던 것은 그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사 9:6; 잠 16:12). 요시야 왕도 여호와와 명령으로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렘 22:15-16).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와 길이다(창 18:19).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부왕과 달리 그의 눈과 마음이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렘 22:13-19).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정의를 구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유다 왕들이 할 일은 예레미야 22장 1-4절에 잘 언급된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왕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 죄수를 석방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룸(misurum)에 해당된다. 또한 이것은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이 왕의 임무임을 말한다.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평등사회(egalitarian society)를 확립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란 단순히 올바른 재판(신 16:18)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글자 같으나 바브(6)로 연결된 정의와 공의는 이어일어(二語一語)로서 공정한 사법 범주 이상의 정치와 삶 전반에 걸쳐 평등이 보장되는 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의미한다. 더욱이 정의와 공의는 세계질서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 즉위 때에 자유, 즉 미샤룸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선함과 관용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그 사명과 목적이 있다. 왕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석이 없다.

### 3) 나라의 백성과 지도자가 할 일은 율법 준수와 국가안보다.

신명기 17장 18절은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해야 할 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옆에 놓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언급한다. 나라의 생존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앗수르나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언제나 양 대륙에서 강자가 침공할 때 조공을 바치고 생존권을 보장받았다. 아무 죄도 없지만 위협과 침공을 받았던 나라이므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어느 한쪽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대주의 사고가 팽창해 있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나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존함으로써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홍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歷史)의 주(主)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존립과 안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유다 아하스 왕 때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전쟁이다(사 7:8 장). 주전 734년 앗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 유다에 동맹을 권유했다. 이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나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자 곧 앗수르의 위성 국가가 되는 등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위기 모면책으로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임마누엘 신앙이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을 거절했기 때문에 패망 일로에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은 존재의 근거이다. 나라의 존립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고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선다. 이는 출애굽의 홍해사건(출 14:13-17),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사 7:4-14)과 역대기 20장 12-17절의 여호사밧의 승리도 같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사 7:9)는 말은 믿음에 생존과 안보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나라 존립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나라의 생존 여부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었다.

## 5. 기독교 장병들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새로운 이해

### 1) 국가관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중 시민권을 가진 기독교 장병들인 우리는 우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3대 의무 중 하나라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간주하고 병역 기피나 군 혐오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상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 나라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인하고 투철한 군 인정신을 소유한 자일수록 신앙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군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을 위에 굳게 세운 집처럼 정신전력의 군인상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세의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될 수 있다. 나약한 군인이 아니라 어떤 적군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인이야말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장병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해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과 같은 맥락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다 같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므로 군 체계상 계급사회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병영생활의 기초가 되어 억울한 대우를 받는 자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발달한 군 생활을 영위하는 병영문화가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의 책임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군의 책임자도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군대를 만 들어야 하는 것이다.

## 2) 신앙관

기독교 장병일수록 이원적인 사고 구조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등한시할 수 있다. 지상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것은 인정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수록 세상을 경원시키고 세상 일을 소홀히 한다. 세상 나라 일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의 나라나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장병으로서 상기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 안보에 책임을 맡은 기독교 장병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 의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나라의 흥망은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으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신앙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8장에서 선지자가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언급했듯이 토기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토기와 같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국가와 민족 생존의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장

병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지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국가 안보가 보장되게 함으로써 참 군인상을 간직해야 한다.

## 6. 결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반세기가 넘는 61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지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다. 또 언제 과거의 비극 같은 사변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은 긴장감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 기독교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A comment : The Understanding of Nation and  
Faith of Christian Soldiers

■ 우기식 Woo, Ki Sik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공군재경근무지원단 군종실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긍정적인 면

이 논문은 군의 가장 고유한 목적인 국가안보의 중심이 최첨단 무기체계에 앞서 장병들에게 있다는 점과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규명해 주고 있다. 특별히 몇 가지 논지에서 국가와 교회, 애국심과 신앙심 사이의 성경적인 연결고리를 탁월하게 논술해 가고 있다.

먼저 국가의 형성과 경계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기에 이것은 자연질

서 이상의 창조질서라고 규명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국가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의 정치행위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정치행위를 신앙행위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신학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인 장병은 탁월한 국가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으로 군에서의 성경적, 신학적 국가관 교육에 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를 위임받은 목적은 같으나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과 특성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이중 의무와 구조로 설명하면서 양자 간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다룸으로 논지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도 주 안에서의 그것과 같다는 부분과 기독교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것과 더불어 결국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의존적인 신앙관을 갖추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펼침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 선교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군 내부에서 발생되어 온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는 불건전한 병영 일탈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의 사명은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이런 맥락에서 비록 계급사회이지만 억울한 대우를 받는 자가 없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야 함을 주문하는 것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군 사역자들의 활동 방향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 2. 발전되어야 할 부분

첫째, 개념의 발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국가안보를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적의 공격이나 침공으로부터 자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안보관은 1980년대까지 통용되어 온 국가안보관이다. ‘안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터 근심, 걱정, 불안을 제거’하는 것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가안보에만 안보의 단어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안보, 자연안보, 사회안보, 국가안보를 동시에 다루고 있으며 군인들의 임무 역시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로 적용되는 국가안보 개념은 ‘국내외 군사·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구성 3요소(국민, 국토, 주권)를 보호,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개념이 발전되어 가고, 군의 임무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화의 속도에 맞춘 적합한 신학적 연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 군과 관련된 사역자들이 정확한 신학적 논리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가치관과 국가 가치관의 긴장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간의 분쟁 시 양국 간의 기독교 군인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지상 나라에 대한 의무가 상치될 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군이 가지고 있는 가치규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와 군대

와 관계된 측면에서는 충성심이고, 둘째는 조직적인 측면으로서 군대는 법규, 규정, 수칙, 명령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개인적 수준의 규범적 가치체계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군인은 본연의 임무 특성상 개인의 자율을 군 복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인권’이란 용어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군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그 주어진 명령이 명백하게 법규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 및 법규와 규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군인 각자가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순응 여부를, 특히 저계급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법규와 규정하에 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또 다른 차원의 수정, 개정, 제정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을 롤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그들이 속한 나라에 기여했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 간 이해 상충 시 발생하는 문제는 국군의 사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외부의 침략이나 내외의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의무를 완성하는 데 있다’는 헌법 제5조의 조문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종합 의견

이 논문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관과 신앙관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철저한 성경적 이해 위에 매우 적극적으로 규명해 주고 있으며, 확신을 가

지고 군생활과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흐름의 전개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이 논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군선교신학 제9권 발제

##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A Study on the Patriotism and Individual Ethic in the War  
based on a Christianity National Point of View

■ 주연종 Ju, Yeon Jong

- 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M.)
- 미 풀러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Ph.D. 교회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1. 연구의 목적

군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투와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고, 테러와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탄생한 유엔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1945년 창설 후 1990년까지 2,340주(週) 동안 지구상에 총성이 멎은 주간은 단 3주밖에 없었다.<sup>1</sup> 전쟁은 개인으로부터 가족, 부족, 민족, 국가 간의 갈등

을 푸는 정치행위의 마지막 수단이다.<sup>2</sup> 그렇다면 루소(Rousseau)의 지적대로 국가의 구성원 사이에 가장 강력한 유대요소인<sup>3</sup> 애국심은 전쟁에서 치열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애국심의 발현은 전투와 전쟁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역사상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전쟁은 수없이 많았다.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교황권을 발동하여 신성로마제국의 젊은이들이 대거 동원되었던 십자군 전쟁(1096년), 프랑스의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목적으로 개전된 위그노 전쟁(1562-1598년), 독일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걸쳐 펼쳐졌던 30년 전쟁(1618-1648년),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진 영국내전(1640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전쟁뿐 아니라 세속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전쟁행위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정복전쟁처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경우와 달리 세속적인 전쟁에서의 적군과 아군의 구분은 선과 악의 관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군의 존재 목적은 적의 위협을 제압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애국심은 이때에도 전투력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무엇이며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인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애국심은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며, 정당한 애국심의 발현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여기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전쟁과 애국심의 상관관계를 살핀 후 기

<sup>1</sup> 국방부 군종실, 《군종업무지침》(서울: 국방부, 1999), 215.

<sup>2</sup>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김만수 역 (서울: 갈무리, 2006), 90.

<sup>3</sup> 박상섭, 《국가·주권》(서울: 소하, 2009), 79. 장 자크 루소에 의하면 조국에는 정부(情婦)에 대한 사랑보다 수백 배 더 강렬하고 감미로우며, 달콤하고 열렬한 감정으로 서의 애국심은 이기심의 힘과 덕성의 아름다움으로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영웅적인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독교적 관점에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의 윤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국가와 전쟁

### 1) 국가관

#### (1) 유럽의 국가관

국가(國家, State)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양에서 오늘날의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이후 이탈리아에서였으며 14세기에 피렌체인들이 자신의 정부 형태를 ‘popolare stato’ 또는 ‘popularis status’로 지칭함을 통해 그 의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물론 고대 로마 공화정 때부터 라틴어의 ‘status’, 혹은 ‘stare’, 즉 ‘서다(to sta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이 어떤 제도나 정치 조직의 기본적 양상 또는 공공복리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sup>4</sup>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존재했던 국가나 통치체는 모두 공화국 아니면 군주제였으며 군주 혹은 공화정 하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통치하는 단위로 존재했던 것으로 정의했다.<sup>5</sup>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는 ‘politeia’로서 이는 ‘국가’라기보다는 ‘나라의 구성’, 혹은 ‘정부 형태’, ‘나라의 체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sup>6</sup> 고대 그리스에서의 국가 개념이 근대와 현대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sup>4</sup> 박상섭, 29-30.

<sup>5</sup> Niccolo Machiavelli, 《군주론》, 강정인, 문지영 역 (서울: 까치, 2003), 11.

<sup>6</sup> Platon, 《국가》, 조우현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82), 13, 99.

## (2) 중국의 국가관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바탕으로 나라 이름도 중국(中國)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漢)나라 때부터 유교를 국교로 삼아 과거시험을 채택하고 유교 이념에 기반한 관료제도를 정착시켰다.<sup>7</sup> 이 유교적 관료제도가 국민을 억압하고 하층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법제도(宗法制度)로 고착화되었다. 여기서 종법제도라 함은 왕과 제후 간의 관계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하고, 본가(本家)와 분가(分家)의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또 종주(宗主) 존중과 동족의식을 강조하는 종법 질서를 왕으로부터 씨족, 가(家),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적용한 광범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이 발전되어 종법봉건제도가 되었는데 종법봉건제도는 안으로는 동일 혈연에 기반한 종법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결속하고 밖으로는 조공을 통해 철저히 군신 관계를 확립하였던 정치제도이다. 이런 종법제도하에서 전통에 대한 극단적인 존중, 선조에 대한 예(禮), 그리고 강력한 가부장제가 정착되었다. 부계사회와 적장자(嫡長子) 계승이라는 종법제의 기본은 4천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고대의 자연경제시대부터 ‘가정→가족→종족→사회→국가’로 확대되었다. 시골의 촌장(村長)은 이 구조 속에서 세 포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종법제도하에서의 중국은 전통적으로 통치는 있었지만 정치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sup>8</sup>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국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최초의 왕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은(殷)나라의 기본단위는 읍(邑)이었다. 읍은 성(口) 밑에 사람이 무릅을 꿇고 앉은 모양(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시대의 읍이라 함은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인위적으로 건설된 거주 지역을 의미한다. 대읍(大邑), 소읍(小邑),

<sup>7</sup> 이채윤, 《중국 4천 년의 정신》(서울:시스컴북스, 2005), 23.

<sup>8</sup> 강준영, 《중국의 정체성》(서울:살림, 2004), 18-25.

도읍(都邑), 상읍(商邑) 등 1000여 개의 읍들이 누층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보면 읍은 군사적인 방어체계를 갖춘 상하 지배 복종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주거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도 대동소이하다. ‘國’은 창과 울타리(口)로 둘러싸인 경작지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것이 주(周)대에 와서는 성곽으로 보호되는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를 의미하였다. 이후 전국 시대에 國은 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을, 都는 군주가 거주하는 영역을, 그리고 鄙(비)는 정치적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립되었다.<sup>9</sup> 따라서 중국에서의 국가란 가(家), 즉 가정의 확대이며 군신(君臣)간, 사대부와 백성 간에는 혈연과 종법에 근거한 주종관계로 형성된 거대 공동체였던 것이다.

## (3) 한 국의 국가관

한국의 경우, 411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비문에 ‘國’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였으나 뜻이 모호했고, 좀더 근대적 의미에 가까운 용례로 사용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인데 신라가 당을 지칭할 때 ‘國家’라고 했으며, 신라 자신을 가리킬 때도 역시 ‘國家’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sup>10</sup> 이후 《삼국사기》에도 국가라는 용어가 40여 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국가라는 개념이 명확해져 가고 있고 사용 빈도도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國家’가 무려 16,974회나 사용되었고, 그 의미도 기본 사회체제 혹은 사회질서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왕조나 왕실 또는 정치 권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틀 또는 일정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를 지키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sup>11</sup>

<sup>9</sup> 박상섭, 93.

<sup>10</sup> 박상섭, 102-4.

근대 이래로 국가는 절대전제국가를 거쳐 입헌국가(자유법치국가), 그리고 대중적 민주복지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 비록 행정부가 점점 비대해져 가고는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도 근대와 현대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상의 논고를 종합해 보면, 국가란 특정한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내에 머무는 구성원들인 국민은 국가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힘을 모으고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적부조를 증대하려 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과 외국에 대한 통제, 억압, 분쟁, 전쟁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

##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관

국가는 특정한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정치적,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체계로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그런데 국가지상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현대세계의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상대적, 배타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국가가 승리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Land Kirche)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포장하고 아리안 민족주의(Nazism)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는데, 이 작업을 주도한 이가 당시 독일군의 군종감이었던 물러(L. Muller) 목사<sup>13</sup>였다. 그리고 메시아로 포장된 히틀러의 주도에 의해 고백교회<sup>14</sup>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탄압을 받았고 순교하기까지 했다. 교회의 후원을 받은 국가권력이 교회와 목사를 탄압하고 죽이까지 했다. 본회퍼는 히틀러와 국가의 만행을 지켜보는 것이 죄스러워 히틀러의 암살을 모의하다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옥중에서의 그는 거의 죽음의 상태를 경험했고, 고문과 회유로 동지들을 고발하게 될 것을 스스로 우려할 정도였다.<sup>15</sup>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국가 혹은 정부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sup>13</sup> 이신진, 《칼 바르트의 교회론》(서울: 성광문화사, 1989), 149. 물러는 1933년 9월 27일에 열린 국가 총회에서 국가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독일군은 이 일로 인해 군종목사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상실했던 교훈을 근거로 현재까지 군목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히틀러의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현역 군목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은 채 민간 성직자를 위촉하여 군목에 준하는 종교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sup>14</sup> 칼 바르트 등에 의해 스위스의 자첸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로서 독일국가교회와 대조되는 개념의 바른 신앙고백을 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 독일은 국가교회인 루터교와 고백교회의 후신인 자유교회(Frei kirche)가 있으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유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국가교회는 국가의 종교국이 직접 관리하며 목회자에 대한 대우와 종교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일정한 액수의 종교세를 자진하여 납세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종교에 따라 그 종단의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종교세는 납세액의 9.8%(2011년 현재)인데 이는 납세액과 별도로 추가로 납부하는 사항이다.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해당 종교로부터 장례식, 결혼식 등의 집례를 거부당하고 묘지 사용도 불허되어 종교상의 이유라기 보다는 복지의 차원에서 종교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고백교회의 정신을 이은 자유교회는 종교세를 일체 교부받지 않고 있으며, 독자적인 건물과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그들 스스로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양면성을 현재 독일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sup>15</sup> Ederhard Bethge,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서울: 복있는사람, 2007), 181.

<sup>11</sup> 박상섭, 110.

<sup>112</sup> 이극찬, 《정치학》(서울: 법문사, 1985), 559.

## (1) 어거스틴의 국가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국가를 이원하여 두 국가론을 전개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지상국가는 강도단과 다를 바 없으며 강대국의 정복전쟁을 “어떤 전쟁에서 다른 전쟁으로 옮겨 한 사람도 해할 줄 모르는 민족들을 다만 통치욕에서 짓밟고 굴복시켰으니 이것을 큰 강도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는가?”<sup>16</sup>라며 강도행위로 평가했다. 이어 어거스틴은 알렉산더 대왕이 체포한 해적이 알렉산더에게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지상국가를 어지럽히십니까? 나는 하나의 작은 배를 타기 때문에 강도라고 명명되지만 당신은 커다란 함대를 이끄셔서 황제라고 명명되는 것뿐입니다”<sup>17</sup>라는 대화를 인용하며 황제와 그의 전쟁행위를 강도단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폄하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역사의 제국(帝國)들 특히 로마제국은 지상국의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으므로 로마제국의 개창자로 알려진 로물루스(Romulus)를 숭배하는 것조차 비난하였다.<sup>18</sup> 어거스틴은 두 나라의 속성은 구별하지만 이 두 나라의 속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두 나라의 시민이 다 동일한 일시적인 선들을 행하며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소망과 궁극적인 가치는 다르다.<sup>19</sup> 다시 말하면 세속국가와 교회, 어느 한쪽도 하나님의 나라나 지상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다. 교회와 국가 양쪽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국가적 요소가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혼합된 요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원리와 출발점이 다르기에 대립구조를 명백히 드러내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sup>20</sup> 따라서 어거스틴의 역사해석도 세계사 내의 이 두 나라의 모호한 긴장관계에 기초하고 있다.<sup>21</sup>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전제국가로서의 지상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지상 나라와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 교회로 동일시하고 있지도 않다.<sup>22</sup> 즉 정치적인 국가는 지상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군주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은 교회 역시 지상국가의 속성인 세속으로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국가는 정치적인 세속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혼합되고 불안정한 상태의 조직체로 존재한다.<sup>23</sup>

## (2) 로마 가톨릭의 국가관

로마 가톨릭의 국가관은 그레고리 1세의 교황 즉위(590년)로부터 시작되어 그레고리 7세에 와서 위상이 강화되면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즉 성속(聖俗)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레고리 7세는 성직매

<sup>16</sup> Augustinus, City of God, IV. 9. (New York: Image Books Doubleday, 1958).

<sup>17</sup> Augustinus, IV. 4. “What you mean by warring on the whole world. I do my fighting on a tiny ship, and they call me a pirate: you do yours with a large fleet, and they call you Commander.”

<sup>18</sup> Augustinus, IV. 10.

<sup>19</sup> Augustinus, 15. 1.

<sup>20</sup> 주연중,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 연구” (Th. M. dis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 1998), 14.

<sup>21</sup> 선한용, 《시간과 영원》(서울: 성광문화사, 1986), 262.

<sup>22</sup> 이에 대해 한철하는 그의 저서 《고대 기독교 사상사》(318)에서 어거스틴의 City of God 20권 9장을 인용하며 어거스틴이 교회는 현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한 예를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으나 선한용은 에드워드 크란츠의 의견을 빌려 어거스틴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당시 로마교회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up>23</sup> 주연중, 17.

매의 금지, 성직자의 독신 강조, 재산감독권과 성직임명권 확보 등을 통해 교황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는 제국이나 권력을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회 우위의 사상을 확립했다. 그는 제국과 황제를 영적 권위인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복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탄의 발명품으로까지 생각하였다.<sup>24</sup> 그레고리에게 있어서 교황은 지상대권자이며 태양으로서 황제인 달을 비추는 지존의 존재였다. 실제로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와서는 유럽의 모든 왕들과 심지어는 왕후들까지 마음대로 교체시킬 만큼 교황주의적 신정정치 형태를 실현하였고, 중세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교황과 로마교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5</sup> 이와 같은 가톨릭 국가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로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을 수 있는데, 아퀴나스는 이충구조적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자연질서에 속해 있는 국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국민은 먼저 교회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영적 통치를 우위에 두었다.<sup>26</sup> 교회는 국가의 상위개념이며 교회는 영원하나 국가와 통치자는 유한한 조직에 지나지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헨리 4세에 와서 등장한 두 검(劍) 이론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두 개의 검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황과 황제에게 각각 내려졌는데 교황의 검이 명예와 품위에 있어서 국가의 검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이었다.<sup>27</sup> 교황 피우

<sup>24</sup> Margaret Deanesly, 《중세교회사》, 박희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111-3.

<sup>25</sup> 김명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기독교문화 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서울: 한기문출판사, 1988), 89.

<sup>26</sup>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Union Theological Seminary Press, 1970), 88.

<sup>27</sup> 최종고, 《국가와 종교》(서울: 현대사상사, 1983), 23.

스(Pius)는 1873년 7월 21일 Academia of the Catholic Religion 연설에서 “교황은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절하게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제 국가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사항까지 판단 내릴 권리를 소유했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중세 이전부터 형성된 가톨릭의 국가관이 아직껏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sup>28</sup> 종교개혁기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1513-1521년)는 교황에 선출된 후 “하느님은 나에게 교황직을 주셨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자”라고 했고,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년)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점성가를 데려와 라테란 궁전에서 대규모 마법의식을 거행하는 등 지상대권자의 파행적 행동은 지속되었다.<sup>29</sup>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1492-1503년)는 여러 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여섯 아들과 세 딸을 두었으며, 아들들에게 최고의 관직과 추기경 등의 성직을 부여하여 세속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도록 배려했다.<sup>30</sup>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축조를 위한 면죄부 판매를 감행한 교황들의 행적은 교회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세속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황청은 지금도 독립국가(市國, City State)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률과 화폐를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과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군대와 경

<sup>28</sup> 원종홍, “국가와 교회의 영역주권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제19권, (1996. 4), 279.

<sup>29</sup> P.G. Maxwell Stuart, 《교황의 역사》, 박기영 역 (서울: 갑인공방, 2005), 8.

<sup>30</sup> P.G. Maxwell, 194. 그의 아들들은 추기경으로부터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성직과 관직을 오가며 세속군주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향유한 교황의 후광에 힘입어 권력을 확대해 나갔다. 피렌체에서 활동중이었던 신부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가 교황의 이와 같은 타락을 비판하자 그에게도 추기경의 자리를 제안하며 무마하려 했으나 사보나 롤라는 “나는 추기경의 빨간 모자보다 피를 원한다”라고 하며 교황의 제안을 거부하며 그의 부정과 부패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그와 그의 동료들을 피렌체의 세노리아 광장 한가운데서 화형에 처하도록 했으나 자신도 독살, 혹은 병사의 의문사를 당함으로 절대 권력의 시대를 마감하게 된다.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에서 제작한 목판화에서 알렉산더 6세는 마귀로 묘사되어 있다.



찰, 경호원, 방송국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국가급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sup>31</sup>

교황은 한 국가의 원수(왕, 대통령, 혹은 총리)로 대우받고 있으며, 추기경은 국무총리, 주교는 장관, 기타 신부들은 부이사관 이상의 관직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이 종교단체이며 동시에 국가 위의 국가 혹은 국가와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 (3) 개혁자들의 국가관

#### ① 칼빈

로마서 13장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무정부주의자 혹은 세속의 국가나 관원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오직 모든 지상적인 권세가 폐지될 때라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높임을 받으며,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노예살이의 멍에를 벗어버릴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느 때나 약간씩은 있다.<sup>32</sup>

더 나아가 칼빈은 바울이 위정자들에 대한 위상을 확립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유일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왕국을 뉘아채려고 음모하는 자들을 합법적인 지도자와 지배자들로 인정하는 것이 얼핏 모순된

<sup>31</sup> 니노 로 벨로, 《백과사전에도 없는 바티칸 이야기》, 이영수 역 (서울: 생활성서사, 2001), 28.

<sup>32</sup> 존 칼빈, 로마서 주석 13장 1절.

것으로 보였다. 추측하건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위정자들의 권위를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확립하게 되었던 것 같다.<sup>33</sup>

칼빈은 세속국가의 존재와 권세자들의 통치를 인정했다. 칼빈은 어거스틴에게서도 보여졌던 두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영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와 세속군주의 통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속국가의 통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이 생각하는 국가 통치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sup>34</sup>

로 정의되었다.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교회의 완벽한 통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그토록 완벽한 세속국가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지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를 부인 또는 배척함을 허용하지 않았다.<sup>35</sup> 그리고 정부형태는 귀족정치와 민주정을 결합한 형태를 선호했는데 이는

<sup>33</sup> 존 칼빈, 로마서 주석 13장 1절.

<sup>34</sup> John Calvin, Institute V. 20. 6.

<sup>35</sup> John Calvin, Institute V. 20. 5.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할 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견딜 만하기 때문이다.<sup>36</sup> 실제로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신정정치는 교회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와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37</sup>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가 교회질서와 정치질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순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루터와 녹스와도 같은 입장에 있다.<sup>38</sup> 그러나 칼빈은 루터나 어거스틴처럼 인류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사탄 이 두 세력의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두 세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은 이 두 영역에서 동일하게 행사되며, 이것이 가시적으로는 교회와 국가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속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국가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통치와 영적인 국가를 의미하는 교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기는 하나 그것이 곧 두 개념 간의 대립과 투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중 통치를 받아야 한다. 영적인 통치는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는 것으로 영적 생활에 속하며, 사회적 통치는 시민으로서의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배우는 현세 생활에 대한 것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통치이다. 양자는 각각 구별된 세계이므로 두 세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서는 각각 다른 통치자와 다른 법의 권위

하에 있는 구별된 두 세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니다.<sup>39</sup>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인 관리들과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성화의 삶을 통해 이를 세속국가, 즉 정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활동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sup>40</sup>

## ② 루터

루터의 경우도 칼빈과 같이 두 정부론, 혹은 이중통치론의 관점으로 국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루터는 무정부주의나 국가와 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에 대해 견제했고, 하나님께서 세속의 관리를 두신 이유에 있어서도 국민 모두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국가의 특성상 세속의 관리가 악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악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받도록 하는 일을 세속 국가가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sup>41</sup> 온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 국가에 속한 자들로 구분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세속 권력과 법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온 세상이 참된 기독교인들, 말하자면 진실한 신자들로만 가득 차 있

<sup>36</sup> John Calvin, Institute V. 20. 8.

<sup>37</sup> W. Fred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87.

<sup>38</sup> 주연종, 63.

<sup>39</sup> John Calvin, Institute III, 19, 15

<sup>40</sup>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에 관한 연구” (Ph. D. diss, 총신대학교, 1996), 243.

<sup>41</sup> 마틴 루터, “세속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 《루터의 정치사상》, 홍치모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5), 81.

다면 군주나 왕이나 권력이나 법률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sup>42</sup> 반면에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하며 세속적인 법 아래에 있게 된다.<sup>43</sup>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법이 필요하고 세속의 엄한 권력도 있어야 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모두 섞여 사는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유지될 권력과 체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루터도 이중통치, 즉 세속국가와 하나님 나라에 이중으로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두 소속된 국가의 주권자로부터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권세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는 영적 권세로 성령께서 기독교인들과 의로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세속 권세로 비기독교인들과 사악한 자들을 다스리시고 외적인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다.<sup>44</sup>

### ③ 기타 개혁자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John Knox)는 국가를 지상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들에게 신성한 종교를 보장하는 하나의 조직체로 이해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이 녹스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된 강한 국가를 선호했다.<sup>45</sup>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죄로 인한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통치 권위를 주어 국가를 제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녹스에게 있어서 국가의 통치자인 왕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았고, 하나

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 제한되었다.<sup>46</sup> 그렇다고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반대했다. 교회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국가 문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가 일에 성직자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sup>47</sup>

녹스의 정치사상은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되었는데 1580년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James Melville)이 제시한 두 왕국 이론(the two kingdoms story)이 그것이다. 두 왕국이란 국가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두 왕국은 엄격히 분리되며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속군주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지만 교회는 그의 통치 영역 밖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는 또 다른 왕국 이므로 세속권이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한 성직자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단지 세속권력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위기에 처해졌을 때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sup>48</sup> 이러한 멜빌주의는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통해 수정되어 이중 통치론으로 발전되고 변경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스코틀랜드 초기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재세례파는 스위스 종교개혁의 온건함과 유아세례에 불만을 품고 국가교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 국가와 교회의 완전 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한 맹세와 군대 징집을 거부함으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 지목되었다.<sup>49</sup>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의도했던 이들의 시도들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고, 1529년 슈파이어의 회에서는 재세례파의 지도자들과 이 단체에 가입하는 자들은 로마시대의

<sup>42</sup> 마틴 루터, 79.

<sup>43</sup> 마틴 루터, 81.

<sup>44</sup> 마틴 루터, 82.

<sup>45</sup> John Knox, *The Works of John Knox*, ed. D. Laing, V. 1-6 (Edinburge: James Thin, 1846-64), 4:480-90, 500-507.

<sup>46</sup> 권태경, “존 녹스의 개혁사상 연구” (Ph. D. diss. 경희대학교, 1995), 98.

<sup>47</sup> John Knox, 5:519.

<sup>48</sup> 김중락, “두 왕국 이론과 교회의 현실 참여”, *World View*,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2011. 7. 32-3.

<sup>49</sup> Williston Walker, 328.

이단을 처단하듯 치안을 방해하는 선동자로 낙인찍어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sup>50</sup> 마틴 부처(Martin Bucer), 루터, 츠빙글리(Zwingli) 등의 개혁 지도자들은 이들을 과격하고 급진적인 운동세력으로 비난하였다.<sup>51</sup> 그렇다고 재세례파가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국법의 선한 역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견해는 이전의 개혁자들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의 결탁(alliance)은 교회의 타락에 가장 심대한 타격이 되었다고 보았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join)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있어서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sup>52</sup>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네덜란드의 목사이며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전 활동 영역에 펼쳤던 인물이다. 카이퍼 당시 국가는 국가지상주의 구현을 위해 국가가 교회나 개인의 신앙, 교육 등을 모두 장악해서 개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을 때였다. 카이퍼는 이에 맞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나 가족 같은 곳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3</sup> 카이퍼는 영역 주권의 관점에서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문화영역으로 보았다.

칼 바르트의 국가에 대한 견해는 일면 아브라함 카이퍼와 유사한 면이 있다. 바르트는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독일교회가 국가교회로 전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백교회를 형성하면서 국가에 대한 관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개의 원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원 중 하나가 국가이며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든 국가든, 목사든 정치인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신학활동, 목회뿐만 아니라 정당을 설립하고 정치적인 행위까지 할 수 있었다.<sup>54</sup>

#### (4) 기독교 국가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란 인문지리적 행정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A국과 B국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혈연상 구분이 될 뿐이지 절대적 권위를 상대국에게 강요할 하등의 명분과 능력이 없다. 역사상의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스라엘, 몽고, 인도 등 전세계 국가 중 그 국호를 2천 년 이상 유지한 나라는 10% 내외이다. 이탈리아, 독일,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세 이후에 탄생했거나 중국, 한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일부 중남미의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탄생한 신생국들이다. 국가의 권력, 즉 왕권도 영원하지 않지만 국가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통치가 있을 뿐이다.<sup>55</sup>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 어떤 통치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국의 국민과 B국의 국민은 지상의 통치는 각각의 국가로부터 받고 있지만 A국과 B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국의 그리스도인과 B국의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국경과 문화가 제

<sup>50</sup> Williston Walke, 327.

<sup>51</sup> Williston Walker, 329.

<sup>52</sup> William R. Estep, *The Anabaptist Story* (Grand Rapids: Eerdmans, 1996), 257-8.

<sup>53</sup>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서울: 킹덤북스, 2010), 259-11.

<sup>54</sup> 이신진, 《칼 바르트의 교회론》(서울: 성광문화사, 1989), 155-6.

<sup>55</sup>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지상 나라로 3중 통치를 말하는 이도 있다.

한할 수 없는 영적 동질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sup>56</sup> 김구가 주장한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는 전세계인을 국경이 없는, 지구촌적 국민으로 규정한 정치사상이었는데<sup>57</sup> 기독교적 국가관, 기독교적 인류관과 유사하다.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를 하나의 시민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적 유대였던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을 1864년 9월 런던에서 창립하였다. 창립 선언에는 “전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슬로건이 높이 주창되었다.<sup>58</sup> 이후 곳곳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이 결성되고 국경과 민족의 구분을 계급의 구분으로 나누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이분화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단정하고 대립과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sup>59</sup>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종결하는 마지막 혁명이 될 것이며,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소멸되고 지배계급도 폐지되는 것이다.<sup>60</sup> 국가의 폐지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새로운 질서하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구별이 없고 계급 없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슬람의 경우도 모슬렘, 즉 이슬람 신자 간에는 형제라 하며 이슬람 형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슬람 국가 간 국제회의체인 아랍연맹(The Arab League), 이슬람회의기구(ICO), 걸프만협력협의회(GCC)를 두고 있는

데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인 범아랍주의, 이슬람주의, 형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sup>61</sup>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초월적, 영적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보편적 인류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해동포주의적 아량을 가져야 하며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을 주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타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승리를 지상의 목표로 삼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적국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기독교는 자기 국가를 절대화하거나 국가주의에 경도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혹은 정부가) 본래의 기능인 종교를 보호하고, 국민평화를 보장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악인과 죄인을 엄히 다스림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sup>62</sup> 되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용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전쟁과 국가

#### (1) 전쟁

전쟁이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대로 무기를 동원한 정치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조직화된 전력과 군사력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의지의 격렬한 충돌이다.<sup>63</sup> 손무(孫武)는 전쟁을 나라의 중대사로 보았다. 이는 백성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마당이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을 결정짓는 길이므로 깊이 삼가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64</sup> 현대전

<sup>56</sup> 엡 2:19

<sup>57</sup> 김구, 《백범일지》(서울: 문학예술사, 1982), 256-7.

<sup>58</sup>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서석연 역(서울: 범우사, 1989), 50.

<sup>59</sup> 마르크스·엥겔스, 17-8.

<sup>60</sup>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서울: 돌베개, 2011), 81-2.

<sup>61</sup> 송민호, 《중동정치론》(서울: 진선미출판사, 1992), 228-9.

<sup>62</sup> 유시민, 31-2. 홉스는,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이는 절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sup>63</sup> Harlan K. Ullman, “전쟁론: 항구적인 원칙들인가 심오한 형태의 변화인가”, 《전쟁 원칙의 신 사고》(서울: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 2006), 102.

은 총력전이며 그 파장과 후유증도 날로 커지고 있다. 현대전은 전자전, 정보전이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경제전이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가 주장한 전쟁의 세 가지 특징, 즉 불확실성, 마찰, 우연 이외에도 현대전에서는 예산과 무기체계, 그리고 국내정치가 작용한다.<sup>65</sup> 현대국가 간의 전쟁은 종교, 외교, 경제문제가 정치·군사적인 문제보다 더 근접한 촉발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소한 외교 마찰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세계정부 혹은 정부들 위의 정부를 모색한 바도 있지만 유엔의 탄생 이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상위에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인 것이다.<sup>66</sup>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초국가적인, 초민족적인 분쟁들이 경제와 이념, 종교 등으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고,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sup>67</sup>

## (2) 전쟁과 기독교

성경은 분쟁과 전쟁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사소한 다툼,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분쟁과 아브라함이 수행한 전투와 전쟁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아마겟돈 전쟁까지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전쟁으로 종식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8</sup>

<sup>64</sup> 손무, 《손자병법》(서울: 홍익출판사, 2007), 62. 손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를 정치, 기후, 지리, 장수, 법제 등 다섯 가지로 꼽았다.

<sup>65</sup> 테니스 M 드류,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진항 역(서울: 연경문화사, 2000), 167-8.

<sup>66</sup> Joseph S. Nye, Jr., 《국제분쟁의 이해》(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9.

<sup>67</sup> Joseph S. Nye, Jr., 311-315.

구약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 상징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sup>69</sup> 구약성경에서만 전쟁이라는 히브리어 ‘밀하마’(Milhamah)가 300번 이상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기록한 부분도 200여 군데 이상이다.<sup>70</sup>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군사들의 하나님’, 즉 ‘군사들의 대장’ 이시라는 의미이다. 타인들에 의해 죽은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살해, 사형, 그리고 전사(戰死)이다. 따라서 전쟁이 어떤 명분을 가졌든지 심지어 아주 고상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쟁과 살인 모두 학대적 성격을 갖게 된다.<sup>71</sup>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성경적인 근거를 유지해야 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결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불의와 압제와 맞서는 절대자이시며 명백히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수백년간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며 신정정치(神政政治)를 받아들였다. 당시 근동의 왕들은 신들의 통치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을 지휘하시고, 법을 제정하셨으며, 집행까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정정치기간 중 하나님은 최고의 군사령관이셨으며 최고의 재판장이셨다. 물론, 필요 시에는 이 두 권한을 위임받아 한시적으로 통치하도록 사사들을 세우셨으나 사사들은

<sup>68</sup> 창 3:1-16, 4:1-10, 14장, 마 24:6-7, 뎀후 3:13, 계 16장-21장.

<sup>69</sup> Peter C. Craigie, 《기독교와 전쟁문제》, 김갑동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5), 48-9. 관련 성경구절로는 출 15:1-18 등이 있다.

<sup>70</sup> Peter C. Craigie, 11, 49.

<sup>71</sup> Peter C. Craigie, 81-2.

등장했다가 물러났고 왕이 아니었으며 여호와와의 통치는 계속되었다.<sup>72</sup>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제기된 왕의 요구는 신정정치의 훼손과 여호와와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 역시 폐기해 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원했으면 다른 민족들과 같은 사회를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무엘의 주장은 합당한 것이었다.<sup>73</sup> 그런 고로 왕정이 시작되고 난 후의 전쟁은 영적 의미에서나, 상징의 차원에서나, 성전의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었고, 살육과 탐욕의 싸움판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전쟁을 무조건 억제하고 이미 벌어진 전쟁은 조기에 종결짓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 태도로 적합한 것인가? 과연 인류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답은 명확하다. 전쟁은 탐욕의 결과이며 죄의 결과이자 죄가 표현되는 과정이다.<sup>74</sup>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징벌을 하셨고, 인간의 탐욕과 죄가 날 날이 드러나도록 하셨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하셨다.<sup>75</sup>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거나 금지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있을 것이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sup>76</sup> 인류가 전쟁을 금하도록 청구하는 기도는 평화의 시기에 인간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좀더 안정적

으로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구가하기 위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평화를 간구했던 유럽인들은 곧바로 쾌락의 길로 들어섰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똑같은 목적으로 종전을 간구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였다.<sup>77</sup>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벌과 회복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전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78</sup> 즉 죽음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전쟁을 통해 수없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탄은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 파견된 사탄 월우드에게 본부에서 내려온 삼촌의 지령이다.

전쟁이 계속해서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점도 우리에게 큰 재앙이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니까. 전쟁통에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이 한 놈인들 있겠느냐.<sup>79</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전쟁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정정치하에서 여호와와의 완전하신 통치의 행위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의 전사(戰死)는 거룩한 전쟁의 헌신의 결과로 인정되었고, 적군으로 전사한 자들은 여호와와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로 여겨졌다.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와의 용사 되심과

<sup>72</sup> Christopher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김재영 역 (서울: IVP, 2006), 314-5. 삼상 8장.

<sup>73</sup> Christopher J. H. Wright, 320.

<sup>74</sup> Martin Lloyd Jones,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이광식 역 (서울: 지평서원, 2010), 116, 122. 약 4:1-2 참조.

<sup>75</sup> Martin Lloyd Jones, 116-124.

<sup>76</sup> Martin Lloyd Jones, 110. 마태복음 24:6-7 참조.

<sup>77</sup> Martin Lloyd Jones, 114.

<sup>78</sup> C. S. Lewis,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김선형 역 (서울: 홍성사, 2006), 40.

<sup>79</sup> C. S. Lewis, 41-2.

만군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지휘관이 되고 왕이 되어 탐욕을 채우고 살육을 자행하는 싸움판이다. 이 전쟁은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선은 존재할지 몰라도 절대 선과 절대적인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확대해 나가신다.

### 3. 전쟁과 애국심

#### 1) 애국심과 전쟁에서의 살인

애국심이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대 요소이며, 이는 전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평시에는 국가 간 스포츠 경기를 통해 전쟁에서의 애국심에 준하는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 용어가 전사(戰士), 작전, 전략, 용병, 군단(팀) 혹은 사단 등 전사의 군사용어와 동일하다. 실제 전쟁에서 애국심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살인행위가 불가피하다.<sup>80</sup> 그러나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다(신 5:17).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에서 '라썹'(rasah)은 '죽이다'의 의미인데, 신명기 20장 10-18절에 나오는 '죽이다'라는 단어는 '하락'(harag), 혹은 '카탈'(qatal)로 '살해하다', '학살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인 동족 내에서 서로 죽이지 말라는 의미이고,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죽이다'라는 동사는 이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국에 대한 살인은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sup>81</sup> 이는 현대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받아

<sup>80</sup> 유시민, 33.

<sup>81</sup> Peter C. Craigie, 84-5.

들이기 어렵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종족과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sup>82</sup>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전시에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그리고 살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전쟁에서의 살인도 살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애국심과 전쟁에서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살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2) 애국심의 특징과 윤리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국가는 유한하고 절대적이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이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 인간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도리인 윤리와 애국심이 충돌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지만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 다른 나라에 속한 국민도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기 마련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충돌될 때에는 분쟁이나 전쟁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결국 어느 한쪽의 패배가 불가피하다. 안중근, 김구 선생은 한국인들이 볼 때에는 애국자이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이며 암살자일 뿐이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은 우리에게 애국자이지만 북한에서 볼 때는 적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83</sup>

애국심의 두 번째 특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그 감정을 품은 사람에게마저도 언제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군은 독일에 충성하고 독일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 다

<sup>82</sup> 고후 5:17, 엡 2:11-19.

<sup>83</sup> 유시민, 117.



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학살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독일군 내에서조차도 암살단이 만들어져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 독일 국민 가운데 나치에 충성하고 애국심을 불태웠던 독일군의 만행에 대해 아직도 애국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대동아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모하고, 이를 애국적 행동이며 뜻깊은 죽음으로 애도하고 있다. 이렇듯 애국심은 장소와 시대, 인종, 민족성에 따라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게 작동한다. 그러므로 윤리와 충돌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어떤 경우에 애국심은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 4.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1) 전쟁과 국가와의 관계

전쟁은 국가단위의 무력을 통한 도발행위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평소에 국가의 성격을 바르게 규정하고 그 규정된 성격대로 국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의 여부가 국가가 전쟁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전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성격을 가진 국가보다 전쟁을 감행하기가 쉽고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일인 독재 국가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보다 군주국이 호전적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그와 같은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가가 그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과 탐욕을 채

우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서 전쟁이 도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가혹한 윤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현대전의 성격상 총력전이 불가피하므로 총력전적 요소들, 즉 경제, 국내정치, 무기체계, 군사력, 국제외교 등에 있어서 전쟁 없이도 분쟁을 조절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쟁은 국가의 성격과 성숙도, 위기관리체계 여부와 상관성을 가지며 발생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2) 개인 윤리와 전쟁에서의 애국심

전쟁은 윤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의 죽음은 가장 무섭고 쓸쓸하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 중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며 왜 서로가 죽이려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인행위를 하는 자들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군인이 2,500만 명, 민간인이 2,400만 명이 희생되었다. 전시에서의 죽음과 부상은 인간 존중의 결함을 극명히 보여준다.<sup>84</sup> 그리스도인은 전쟁에서도 윤리적으로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다.<sup>85</sup> 나라를 지키고 애국심을 표현해야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징벌적 차원에서 전쟁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를 지키며 전장에서 애국심을 표현하며 전투를 수행하기

<sup>84</sup> Peter C. Craigie, 82.

<sup>85</sup> 창 1:28, 엡 1장, 고전 10:31 등.

위해서는 첫째, 성전(聖戰)이라 할 정도로 명분이 충분한 전쟁이 되어야 한다. 약탈군, 침략군은 명분이 없고 사실상의 도적단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sup>86</sup> 그리스도인들이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게 될 때에는 정의의 군대, 의의 병기가 되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장에서도 가급적 평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sup>87</sup> 셋째, 가능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고 심리전이나 선전전을 통한 승리의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민간인, 부녀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전우들과 부하들에게도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미온적인 전투로 전쟁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해 종전을 앞당긴다.

## 5. 결론

현대사회와 현대국가는 신정국가가 아니며 신정정치가 행해지고 있지도 않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세속국가의 관료나 정치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지금도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팽배한 물질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국 이기주의로 문화전쟁, 자원전쟁, 식량전쟁, 경제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이런 세속국가의 불완전함 속에서 이중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同心圓)적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속 국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 자각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세속국가의 일원으로서 성전도 아닌, 명분도 미약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결과로 전쟁이 도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참전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병기로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통치의 예외적인 장소와 환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정벌로 도래한 전장에서 추가적으로 죄를 산출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애국심을 표현하는 현장에서 이기심과 탐욕,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윤리적 요구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애국심이 윤리보다 앞서지 못하며, 애국심의 대상인 국가도 하나님의 계명만큼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타국의 침략을 억제할 뿐 아니라 침략이 있을 때에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종식하기 위해 군대는 교육과 훈련에 매진해야 하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악한 세속 국가는 살육을 통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 군사력에 의해 탐욕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쟁을 원치 않을수록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sup>86</sup> John Calvin, Institute, V. 20. 11.

<sup>87</sup> John Calvin, Institute, V. 20. 12.